



제목	A Peace to End All Peace: The Fall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Middle Eas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olt Paperbacks
발행일	2009. 7. 21.
저자	David Fromkin
출판도시	New York
페이지수	688
ISBN 또는 ISSN	978-0805088090

내용 요약

『모든 평화를 종결짓기 위한 평화: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현대 중동의 탄생』은 1914~1922년 동안 연합국들이 오늘날의 중동 국가들을 탄생시킨 방법과 이유에 대해 연구한 책이다. 당시 영국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를,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관할하였다. 저자 프롬킨은 오늘날 중동 문제의 근원은 이들 유럽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의 몰락 후 위협한 방식으로 국가의 경계선을 구획한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오스만 제국에 대한 영국의 빈약한 정치적 논리와 무지의 결과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은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보다 영국 치하에서 사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책은 총 11부로 구성되어 있다. 1~5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보여준 영국군 군사령관인 키치너(H. Kitchener)와 영국 관료 조직과의 괴리, 오해를 설명하고 있다. 6~12부까지는 아랍인들에게 지원의 대가로 땅을 약속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영국의 관료주의적인 정치가들이 중동의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처칠의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있다. 1915년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실패는 당시 사람들의 말과 달리 처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작전의 희생양을 처칠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 처칠은 처음에는 갈리폴리 작전을 반대하였고, 실패 후에는 구조대를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후 처칠만이 동부 지역의 이슬람교적인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타당한 주장이었다고 보았다. 저자는 처칠을 제외하고 중동에 무지한 영국의 정치가들이 1922년 중동 지역을 결정지었고, 이것이 중동의 국경선과 정부의 논쟁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